

목포권

‘목포 최고 손맛’ 음식명인 10인



우정단 <인동초 꽃게장> 박종매 <한약재 꽃게장> 오경단 <먹갈치조림> 조일근 <지황갈국수> 홍영자 <갈치조림>

목포의 맛을 알릴 ‘음식명인’ 10명이 선정됐다. 목포시는 15일 목포음식의 명성과 맛을 널리 알리고 맛집 거리 활성화 등 음식 문화의 관광상품화를 선도할 목포 음식명인 10명을 지정하고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그러나 A대리점으로부터 똑같은 씨앗을 구입해 이씨보다 10일 늦게 파종한 박모(58)씨 또한 꽃대가 올라와 적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어 판매상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장연자 <굴비정식> 서병임 <낙지전복전골> 손성애 <궁중꽃게무침> 문애자 <아구찜> 이정실 <갈치찜>

시는 명인 지정 이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명인·명가로 지정된 사람이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전통식품 명인’에 신청하면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정하는 맛집 거리에 분점을 설치하거나 신규 개업할 때도 시설 보수비 등 총사업비의 50%의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량종자에 망친 무농사 어떡하나

무안 농민들 보상 요구에 판매상은 ‘나 몰라라’...군은 ‘뒷집’만

“종자가 좋다고 지인이 소개해서 믿고 샀는데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무안군 현경면에 사는 이모(71)씨는 얼마 전 가꿔놓은 무밭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씨는 지난 4월 값싸고 좋은 씨앗을 공급한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영암에 있는 A종도 대리점에서 무 종자를 구입해 1만6천500여㎡(5천여평)에 파종했다.



정상적인 무(왼쪽)와 불량 종자로 자라지 못한 무

고 우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A대리점으로부터 똑같은 씨앗을 구입해 이씨보다 10일 늦게 파종한 박모(58)씨 또한 꽃대가 올라와 적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어 판매상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수년째 불량 농사를 짓고 있다는 박모(52)씨는 “종자판매상이 경향이 부족한 농민들에게는 꽃대가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막상 피해를 입어도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종자피해를 입어도 마땅히 하소연할 수도 없는 농민들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자 판매상은 “올해는 일교차가 심해 일부 지역에서 꽃대가 올라온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씨의 경우 파종시기를 앞당겨서도 무가 잘 자라 육심을 부려 일찍 심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이씨 측으로 돌렸다.

이 판매상은 또 “씨앗에는 전혀 잘못이 없고, 꽃대가 올라왔어도 상품가치는 별 차이가 없는 만큼

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종묘상에 가서 구입한 씨앗통에 적혀있는 시기에 맞춰 파종했다”며 “무 중간상인들도 상품가치가 없다고 외면하고 있어 살아야 할 형편인데도, 종자판매상은 상품가치에 차이가 없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사계절 내내 ‘꽃피는 1004섬’

신안군, 관광지에 경관조성용 꽃묘 사업

신안군이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섬을 만든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사계절 꽃피는 섬을 만들어 ‘천사(1004개)의 섬’ 이미지를 높이고자 경관 조성용 꽃묘를 대량 생산해 14개 읍·면에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다.

지난 3월에 1차로 팬지, 석죽 등 봄꽃 4종, 5만 그루를 생산해 분양한 데 이어 최근에는 메리골드, 페튜니아 등 여름꽃 10종, 20만 그루를 나눠줬다.

분양된 꽃묘는 각 읍·면 선착장과 500여 개의 해수욕장 주변, 마을별 소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 심었다.

군은 오는 9월에는 여러해살이 꽃류를 중심으로 섬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꽃묘 분양을 통한 경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섬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읍·면 현안 토론회 통해 ‘술술’

신안군, 농로 확·포장 등 100여건 신속처리

신안군이 올해 역점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14개 읍·면의 당면과제를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군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읍·면과 각 실·과·소 간 업무협의 토론회를 통해 이를 신속하게 처리,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매주 월요일을 ‘권역별 읍면 주요 현안업무 토론회’의 날로 지정해 군수·군의회·실과소장·읍면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군은 업무협의 토론회를 통해 읍·면장이 해결하지 못한 농로 확·포장, 상수도 물 공급문제, 노인복지 행정서비스사업,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등 100여건이 직접 처리·시행되는 성과를 올렸다.

박우량 군수는 “앞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군의회 의원, 이장, 읍면단위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등 참여를 확대해 민·관이 함께하는 행정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진도 햇살 참외’ 인기 폭발

색깔·당도 탁월... 농가 소득 증대 기여

겨울 대파의 대체작목으로 진도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진도 햇살참외’가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진도 햇살참외가 농협 하나로마트, 목포 원에농협, 각종 친환경업체, 우체국판매, 직판 등으로 판매되면서 5월말 현재까지 농가당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연장재배가 이뤄지는 8월 말까지 참외를 수확할 경우 호당 5천만원 가량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3년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햇살 참외는 현재 진도군내에서 69동(3만

4천720㎡)의 시설하우스를 갖추고 있다. 이중 군지역은 27동, 시범농가 42동으로 구성된다.

진도햇살 참외는 진도의 따듯한 햇살과 천혜의 자연에서 길러진 산야초·숙·아카시아꽃 등을 발효해 만든 천연영양제를 뿌려 색깔과 당도 면에서 다른 지역 품종을 압도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재배방법을 연구해 재배능력을 확대시키고 친환경 납품업체나 대형 마트와의 계약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질식날엔 진도 흥주”

군·우체국 홍보 나서

진도군이 오는 7월 7일 ‘진도 흥주의 날’을 앞두고 우체국과 함께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진도군은 “빨간 우체통과 선홍빛 진도흥주의 어울림을 떠올리며, 진도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오는 7월 7일 제1회 진도흥주의 날 기념행사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천년전통의 진도흥주의 문화를 전승 보존해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목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은 2003년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흥주의 명품화에 성공해 미국·캐나다·중국·아프리카 가나 등에 진도군수가 품질 인증한 ‘진도흥주 투비리’를 수출하고 있다.

한편 민속유전 진도 흥주는 쌀과 보리를 원료로 증류해 만든 곡주에 한약재인 지초를 사용, 지초주(芝草酒)라고도 했다. 맛과 향·색을 고루 갖춘 고려시대 이후 전통적인 술로 유일하게 진도군에서만 전승 제조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Lists phone numbers for various services and location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건물매매, 중전소매매, 주유소매매, 원룸매매.

국민공인중개사. 공시지가가 2억 매매가 2억 2천 만원. 상입지역 130p 삼각동.

번영 공인중개사. 모 델. ※수익성 좋은 물건 다량 확보※. 신축모텔(매매,임대).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경매전문회사 (주)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 062)228-6600.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